<자기대면>

하나님께서 이 공부를 당신의 삶에 사용하신 간증

백남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당신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동행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까?

자기대면을 시작한 동기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음을 알기에 너무 조심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자기대면을 하면서 가장 큰 발견은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치기 않기 위해 사람들 틈으로 들어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자신을 더욱 사랑하라 라는 말이 없음을 알게 해 주신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대로 나 자신의 초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관점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 중심에 두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 지키지는 못해도 성령께서 빨리 깨닫게 해 주셔서 바로 바로 회개할 수 있어서 자유하게 말씀을 지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친정엄마가 황반변성 치료로 미국에서 오셨는데 돌보다 보니 불평이 생기고 여러 형제가 있는데 왜 내가 다 맡아서 해야하는지? 등등의 불만과 마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평안이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대면 공부를 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공부를 하는 횟수가 지나갈수록 회개하게 되어 나에게 엄마를 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서 6장 4절 "부모들아, 자녀들로 분을 일으키게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주안에 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나의 자녀들이 주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행하도록 훈련시켜야 하는데 나의 욕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어느날은 검박하고 비교하며 돈을 써가며 과외에 학원을 보내며 학원비 들어간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혼내고 겁을 준 나의 추악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키웠다고 생각한 자녀들을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께서 도와주셔서 그래도 잘 커준 자녀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부를 하면서 남편이 가장 많이 떠 올랐습니다.

위의 세가지의 못난 나를 사랑해 주고 아껴주고 응원해주는 남편에게 가장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의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셔서 깊은 은혜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